

노마드적Nomadic 가치관이 지속가능성에 주는 함의

장석길* Bayarsaikhan Tsolmon** 신지혜***

【요약】

역사적으로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는 인류에게 지속가능성의 개념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왔다. 하지만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생태·사회적 위기를 되돌아볼 때, 국가발전 규범으로서의 현대 지속가능성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체계화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이념적 기틀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지속가능성의 개념적 모호성의 원인은 지속가능성의 세계관과 실천적 규범을 매개하는 공동의 가치관의 부재로 정의되며, 따라서 역사적으로 나타났던 지속가능한 가치관의 선례들을 검토하여 현세대의, 더 나아가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성 개념을 보완하는 것은 유의미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인류는 수백 만 년 동안의 대부분의 존속 기간을 소규모 집단을 이루어 끊임없이 이동하는 삶의 방식을 지속하였다. 유목은 인간이 환경으로부터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의식주에 필요한 자원을 얻을 수 있었던 생활양식의 선례로서, 자연과 인간 사회의 관계성을 재조명하는 측면에서 오늘날 지속가능성에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 유목과 정착의 특징 비교를 통해 살펴본 노마드적 가치관의 주요 개념은 ‘소유와 풍요’, ‘자연과 문명’, ‘평등’으로, 지속가능성 논의에서 대표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TBL(Triple Bottom Line) 개념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차원에서 노마드적 가치관이 현대사회의 지속가능성에 갖는 비평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유목, 노마드적 가치관, 지속가능성, 지속가능발전, 인류문명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

I. 서론

환경으로부터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의식주에 필요한 자원을 얻는 것은 역사적으로 모든 인간 사회에 공통으로 부여된 과제였다.¹⁾ 따라서 지속가능성은 20세기 말에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용어로 처음 언급되기 시작했을 뿐,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는 인류에게 지속가능성의 개념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왔다. 하지만 오늘날의 지속가능성 개념은 역설적이게도 개념이 갖는 범용성에 의한 모호성 때문에 아직까지 그 의미가 명료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점을 드러내 국가발전 규범으로서의 지속가능성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체계화하는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지속가능성 개념의 가장 큰 특징은 주체자에 따라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이 되는 방향으로 해석이 가능한 다의성多義性으로²⁾, 지속가능성이 궁극적으로는 경제 성장의 지속을 위한 합리적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과 약지속가능성weak sustainability와 강지속가능성strong sustainability³⁾의 경우와 같이 지속가능성 개념 내에서도 환경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상이하게 나타나 경제 성장과 환경보호에 대한 일관된 입장을 취할 수 없다는 비판이 존재해 왔다.

이러한 개념적 혼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오늘날의 지속가능성이 현대문명의 진행 방향에 대한 공동의 합의를 이뤄낼 수 있는 가치관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지속가능성은 인간 사회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다양한 가치들의 충돌을 해소할 수 있는 합의점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며, 가치의 의미를 열어둔 채 어떠한 공동의 가치관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지속가능성의

1) 클라이브 폰팅, 이진아·김정민 역 (2010), p. 511.

2) 김관석·사득환 (1999), p. 79.

3) 약 지속가능성은 자연 자본과 인간이 만들어 낸 인공 자본 간의 상호 대체가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반면, 강 지속가능성은 자연 자본이 인공 자본으로 대체될 수 없다는 시각을 나타낸다.

실현을 위해서는 지속가능성의 실천적 토대인 공동의 가치관의 확립이 요구되며, 따라서 인류 역사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통하여 역사의 흔적을 되돌아보고 그 흔적 속에 내재된 지속가능한 가치관의 개념을 추출하여 현세대의, 더 나아가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성 개념을 보완하는 것은 유의미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지속가능성의 실현을 위한 논의는 대량소비로 대변되는 현세대 생활양식의 지속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인류는 역사의 90퍼센트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생존기간 동안 수렵과 채집을 통해 존속하였는데 이러한 생활양식이 매우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수렵·채집 집단이 환경에 미치는 전체적인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이다.⁴⁾ 수렵·채집 집단은 일반적으로 강한 이동성⁵⁾을 나타내었으며 이것은 결과적으로 집단 내의 인구수를 낮게 유지하여 생태계 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경과 공존하는 유목(nomadism⁶⁾)의 삶의 형태를 가능하게 하였다.

유목 생활에서 정착 생활로의 본격적인 전환이 이루어진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1만 년 전으로 인류사적 관점에서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역사적으로 인간 사회에 제기된 지속가능성의 문제들이 발생과 해결의 순환적 과정을 거쳐 왔음에도 불구하고, 문명의 진보로 상징되는 현대사회에서 지속가능성이 국제적인 화두로 조명되는 이유는 지금까지 인류가 영위해왔던 삶의 방식의 결과들이 축적되어 지속불가능성의 궁극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인구집적과 자원의 집약적 이용으로 대변되는 정착

4) 클라이브 폰팅, 이진아·김정민 역 (2010), p. 57.

5) 리처드 리Richard Lee와 어빈 드보어Irben DeVore는 수렵·채집 집단의 행동 특성과 관련하여 모든 수렵·채집 집단에서 나타났던 공통된 두 가지 기본 원칙을 ‘소규모 집단’과 ‘강한 이동성’이라고 주장하였다.

6) 유목에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사냥·채집을 하며 이동생활을 하는 경우와 목축을 하는 경우, 수선이나 장사를 하며 유랑하는 경우가 있다(브리태니커 온라인, 2019). 본 연구의 주요 개념인 유목은 목축을 하며 주기적으로 이동하며 살아가는 생활 방식을 의미하는 협의의 유목이 아닌 고대 수렵·채집 집단에서 공통으로 나타났던 생활양식으로서의 광의의 유목을 가리킨다.

생활과 세대 간의 형평성을 강조하는 지속가능성은 근원적으로 상호배타적이며, 따라서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생활양식인 정착은 지속가능한 인류문명을 위한 어떠한 여지도 남겨두고 있지 않을지 모른다.

현시대의 화두는 모빌리티(mobility)이다. 십 수 년 전부터 디지털 노마드(digital nomad, 잡 노마드(job nomad) 등 유목의 개념이 회자되고 있지만 이 모든 시도들이 단순히 이동성에 초점을 맞춘 노마드 개념의 현대적 재해석에 그치고 있다는 점은 신유목주의(neo-nomadism)에 대한 최근의 회의적 비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유목에 대한 개념적 고찰은 현대인의 생활 방식과 사회 현상의 원리를 설명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것에 숨겨진 가치관을 해석하여 실천적으로 적용할 때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유목은 역사적으로 인간이 환경으로부터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의식주에 필요한 자원을 얻을 수 있었던 생활양식의 선례로서 현대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정착 생활과 비교했을 때 자연과 인간 사회의 관계성을 재조명할 수 있는 수많은 함의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대 수렵·채집인들의 생활양식인 유목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들을 분석하여 노마드적 가치관⁷⁾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것이 현대사회의 지속가능성 개념에 갖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7) 본 연구를 위한 조작적 개념으로 고대 유목 생활양식을 구성하는 주요 가치체계를 의미한다.

II. 지속가능성과 지속가능한 가치관

1. 이념, 세계관, 가치관, 실천

한 개인, 한 집단, 한 사회의 행동에는 필연적으로 특정한 이념 혹은 다수의 이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이념은 개인이나 사회가 각기 그들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조직함에 있어 불가피하게 전제되는 세계관과 가치관을 포함하는 개념으로,⁸⁾ 객관적 견해로서의 세계관과 주관적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관은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의 가치, 신념, 사고방식, 태도 등에 영향을 미친다. 개인은 세계를 바라보는 거시적인 틀 안에서 개인의 가치 판단에 대한 기준을 형성하게 되며, 이러한 과정은 개인이 소속한 사회 혹은 문화권의 영향을 받으며 조정 또는 새롭게 형성된다.

가치는 인간의 욕망과의 관계 속에서만 의미를 지니며, 개인에 따라 혹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매우 주관적으로 나타난다는 특징을 지닌다. 개인의 모든 판단에는 가치가 개입되며, 따라서 가치관은 개인의 행동을 결정하는 실천적 원칙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가치는 동시에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객관적인 성격을 나타내기도 한다. 인류의 생존과 같은 전체의 행복을 위해 합의될 수 있는 공동의 가치는 분명히 존재한다. 박이문은 가치를 주관적인 욕망이나 기호의 표현으로 여겼던 기존의 자기중심적, 씨족 중심적, 민족 중심적, 인간 중심적 가치관을 비판하며, 문명의 존속을 위한 인류의 공동의 가치관인 생태학적 가치관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⁹⁾ 오늘날의 문명사적 위기를 되돌아볼 때, 개인 혹은 한 집단의 주관적인 욕망을 넘어서는 객관적 가치 기준의 확립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8) 박이문 (1996), p. 113.

9) 박이문 (1996), p. 129, p. 132.

2. 이념으로서의 지속가능성, 실천으로서의 지속가능발전

자연환경의 수용 범위 내에서 경제성장을 인정하는 이념으로서의 지속가능성은 인류가 초래한 생태학적 위기라는 시대적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인간 중심적 세계관과 생태중심적 세계관이 결합된 복합적인 세계관을 내포하게 되었다. 하지만 동일 개념 내에서 강지속가능성, 약지속가능성 등과 같이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들이 합의되지 못한 채 다양하게 나타나는 원인은 지속가능성의 본질적인 개념상의 문제에 기인한다.

지속가능성이 국가, 지역, 도시발전의 이념으로 널리 수용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지속가능성 개념이 갖는 모호성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어떠한 이념으로도 국가 간의, 그리고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완전한 동의를 얻어내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지속가능성은 개념의 사용자에 따라 의미의 다양화를 추구할 수 있는 포괄성으로 다수의 공동의 이해를 얻게 되었다. 의미를 열어둠으로써 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지속가능성 개념의 허와 실은 동일한 문제에 대한 서로 다른 측면을 언급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지속가능성은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가 발간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 보고서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의 용어로 처음 언급되었으며 그 정의는 ‘미래 세대로 하여금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세대 간의 형평성 달성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개념이다.¹⁰⁾ 하지만 지속가능성 개념을 근간으로 하는 지속가능발전은 ‘미래 세대의 필요’를 명확하게 정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세대의 필요’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수용될만한 합의점을 제시하지 못하는 개념상의 한계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개념의 사용자에 따라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해석이 가능한 다의성은 개념상의 혼란을 야기하게 되며,¹¹⁾ 이러한 혼란은 근본적으로 지속가능성이 현대문명의 진행 방향에

10)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1987), p. 16.

대한 공동의 합의를 이뤄낼 수 있는 가치관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데서 발생한다. 지속가능성은 인간 사회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다양한 가치들의 충돌을 해소할 수 있는 합의점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며, 가치의 의미를 열어둔 채 어떠한 공동의 가치관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문제의 원인은 지속가능성의 실천적 토대인 가치관의 부재에 있다(표 1).

그러나 가치관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성은 오늘날 지속가능발전의 형태로 실천적 영역에서 국제적으로 널리 수용되는 국가발전규범으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지속가능발전 법·제도의 제정 및 시행, 평가 지표의 개발 등 보다 구체적인 수준에서의 연구와 사례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가치관이 전제되지 않은 실천 규범은 결국 형식적인 시도에 그치게 될 수 있으며, 따라서 지속가능성의 세계관과 실천적 규범을 매개하는 공동의 가치관의 확립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념	세계관	가치관	실천 전략
지속가능성	인간중심적 세계관 생태중심적 세계관	-	지속가능발전

[표-1] 이념으로서의 지속가능성과 실천으로서의 지속가능발전

3. 지속가능한 가치관

지속가능성은 경제적 측면과 환경적 측면, 그리고 사회적 측면 간의 연계성과 균형성을 핵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둔 종래의 발전 양상들과는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경제성장을 인간의 복지를 달성하기 위한 현실적 수단임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환경 보존과 사회적 평등까지도

11) 김판석·사득환 (1999), p. 71.

고려하는 포괄적인 접근 방식에는 서로 다른 측면 간의 가치 충돌을 해소해야 한다는 문제가 따른다. 현재까지의 지속가능성 논의에 대해서 경제적 측면에서는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로 작용할 수 있고, 환경적 측면에서는 환경 문제에 대한 일관된 입장을 취할 수 없으며, 사회적 측면에서는 사회적 형평성의 대상 설정과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회의적인 시각이 제기되어 왔다. 지속가능성의 균형성과 연계성의 실현을 위해서는 현대문명의 진행 방향에 대한 공동의 시각이 확립되어야 하며, 과거와는 상이하게 나타나는 오늘날의 사회 체제와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가치관으로의 전환이 수반되어야 한다.

가치관은 일종의 적응형질¹²⁾로서 역사적으로 인류문명의 주요 전환기에는 특정 사회 체제에 적합한 가치관으로의 전환이 수반되었다.¹³⁾ 즉, 문명의 주요 전환기마다 사회 체제의 커다란 변화가 수반되었고, 변화된 사회 체제에 상대적 유용성을 부여하는 가치관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생태학적 위기는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인류의 존속마저도 위협하고 있으며, 인류는 새로운 문명의 기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클라이브 폰팅Clive Ponting은 환경으로부터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의식주에 필요한 자원을 얻는 것은 모든 인간 사회에 공통된 과제였으며, 환경을 지키려는 모든 노력은 역사적 탐구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⁴⁾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지속가능한 생활양식과 사회 체제의 선례들을 검토하는 것은 오늘날 지속가능성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한 유의미한 접근이 될 수 있다. 수많은 선례 중 가장 역사가 오래된 지속가능한 생활양식의 사례로는 유목이 있다. 인류는 역사의 90퍼센트에 해당하는 대부

12) 적응형질은 생물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환경변화에 따라 형태·기능 등을 변화시켜 이에 순응하는 형질을 의미한다.

13) 이안 모리스, 이재경 역 (2016), p. 33.

14) 클라이브 폰팅, 이진아·김정민 역 (2010), p. 511, p. 513.

분의 생존기간 동안 집단의 규모를 작게 유지하고, 끊임없이 이동하며 수렵과 채집을 통해 존속하였다. 고쿠분 고이치로國分 功一郎가 주장한대로 인류의 육체적, 심리적, 사회적 능력과 생활양식이 정착 생활보다는 오히려 인류가 지난 수백 만 년 동안이나 지속해온 유목 생활에 더욱 적합한 것일 수 있다¹⁵⁾, 인류의 본원적인 삶의 방식으로서의 유목은 인류의 과거를 지탱해주었듯이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새롭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는지 모른다.

Ⅲ. 노마드적 가치관

1. 유목 사회에서 정착 사회로의 전환

유목 사회에서 정착 사회로의 전환기를 설명하기 위해 가장 많이 회자되는 문명사적 사건은 농업혁명이다. 농업은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온난기가 도래하면서 시작된 식량 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시작되었다.¹⁶⁾ 농업혁명은 인류에게 새로운 식량생산 방식을 가져다주었으며, 물질문명의 토대가 되었다는 점에서 수많은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농업혁명과 정착혁명의 인과관계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미완의 논의로 남아있다. 기존에 인류학자들이 주장했던 보편적 인류사관에서는 정착보다 식량 생산의 시작에 초점을 두며, 정착 생활을 식량 생산의 결과물로서 바라본다(표 2). 즉, 수렵·채취를 통한 식량 획득 방식의 한계에 의해 농업이라는 식량 생산 방식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였고, 그 결과로서 농업에 최적화된 삶의 형태인 정착 생활이 등장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고쿠분 고이치로 등은 정착혁명적 인류사

15) 고쿠분 고이치로, 최재혁 역 (2014), p. 69.

16) 정희성 (2008), p. 8.

관에서 식량 생산을 정착 생활의 결과로 바라보는 대조적인 시각을 제시한다.¹⁷⁾ 고이치로는 농경이 아닌 어로 활동을 통해 식량을 획득하였던 북아메리카 북서 해안이나 아이누 지역의 여러 정착 민족들의 사례를 들어 정착 생활에 반드시 식량 생산이 요구되지 않았음을 주장한다.¹⁸⁾

기존의 보편적 인류사관	정착혁명적 인류사관
유목 생활 → 식량 생산 → 정착 생활	유목 생활 → 정착 생활 → 식량 생산

[표-2] 기존의 보편적 인류사관과 정착혁명적 인류사관의 비교

농업혁명 이전의 인류사회에서는 특정 토지를 목적에 따라 인위적으로 변형시키는 토지 개발¹⁹⁾ 행위가 소극적으로 나타났으며, 주변 환경에서 수렵과 채집을 통해 필요 식량을 확보하는 생물학적 생존의 문제가 우선시 되었다. 농업혁명은 인류가 식량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 이용을 본격화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지표의 인위적 변형은 생존을 위한 모든 인간 활동의 기반이 되었다. 이 시기에 발생한 토지 이용 양상의 변화는 토지 개발뿐만 아니라 토지의 소유 및 잉여 생산물의 축적에 의한 부의 격차와 이로 인한 계급 사회의 출현이라는 인류사회의 전반적인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²⁰⁾

농업혁명은 궁극적으로 도시의 탄생을 가능하게 하였다. 지금으로부터 약 5500년 전 최초의 도시가 형성되었으며, 인구 밀도가 높고 인간 활동이 집중되는 도시의 기본적 성질에 따라 토지 이용이 광범위한 규모로 계획되기

17) 고쿠분 고이치로, 최재혁 역 (2014), pp. 69-72.

18) 고쿠분 고이치로, 최재혁 역 (2014), pp. 70-71.

19) 토지를 사용 목적에 맞도록 땅고르기, 구획 정리, 관배수 시설 따위를 하여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토지를 사용하기 좋게 만드는 작업을 의미한다.

20) 클라이브 폰팅, 이진아·김정민 역 (2010), p. 60.

시작하였다.²¹⁾ 이때부터 인류는 거주공간과 자연을 분리하는 정주 형태를 만들어 내었으며 주변 생태계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아야만 도시가 유지될 수 있는 자급 불능의 기생 생태계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도시적 정주 형태는 고대 이후 현대까지도 이어져 인류의 보편적인 생활양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따라서 농업혁명은 유목 생활에서 정착 생활로의 전환기에서 좁게는 식량 생산에 따른 토지 이용 방식의 변화로부터 넓게는 정치, 경제, 종교 체계와 같은 인류사회의 전반적 요소들을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유목과 정착을 비교하는 주요 논의들을 살펴보면 고이치로는 유목 생활 당시 생존을 위해 인류에게 긴밀히 요구되었던 자연에 대한 ‘탐색 능력’은 정착 생활의 시작과 함께 인간 내면의 ‘심리적 능력’으로 대체되었으며, 그 결과 문명의 초석으로 대변되는 공예 기술, 정치·경제 체계, 종교 체계 등의 발전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진보로서의 정착 혁명의 긍정적 측면에 대해 조명한다. 하지만 동시에 정착 혁명이 초래한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 식량과 사유재산의 불공평한 배분, 사회 범죄의 발생, 폐기물 처리 문제 등 오늘날 인류사회에서 나타나는 주요 사회·경제·환경적 문제의 기원이 정착 생활과 강하게 결부되어 있다고 주장한다.²²⁾ 스기야마 마사아키(杉山 正明)는 인류학과 역사학의 관점에서 고대 유목민들은 일반적으로 문자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고대 유목 사회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은 정주민들의 역사를 통해서 접근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유목민들에 대한 생각이나 이미지가 정착민의 시각에서 지나치게 ‘폭력적’이거나 ‘야만적’인 것으로 왜곡되거나 과장되어 나타난 것일 수 있음을 주장하며 고대 유목 사회에 대한 새로운 분석적 시각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²³⁾ 또한 최근 회자되고 있는 유목의 현대적 재해석에 대하여 자크 아탈리(Jacques Attali)는 오늘날

21) 정희성 (2008), p. 8.

22) 고쿠분 고이치로, 최재혁 역 (2014).

23) 스기야마 마사아키, 이경덕 역 (2013).

상업적 세계화의 가속화에 따라 현대 정주 사회에서 유목은 디지털 노마드, 잡 노마드 등의 새로운 형태로 전개되고 있으며, 따라서 앞으로의 인류 역사와 문명에서 나타날 유목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류가 과거에 아왔던 것들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²⁴⁾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문명사적 관점에서 유목 사회에서 정착 사회로의 전환은 현대문명의 초석이 되었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의견을 보이지만,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정착 사회의 문제들을 역사적으로 조명하는 틀로서,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형태의 유목의 양상을 파악하는 틀로서 고대 유목 사회를 분석하는 것은 중요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2. 시간의 확장과 공간의 축소

인간의 모든 행위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물리적인 제약 내에서 이루어진다. 지속(持續)은 ‘어떤 상태가 오래 계속됨’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지속 대상의 시간적, 공간적 범위를 전제로 한다. 문명의 혜택으로 인간은 시간과 공간을 다소 인위적으로 극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결과 인류사회에서의 시간과 공간의 범위는 자연 세계에서 시간과 공간의 범위와는 다른 양상으로 확장 또는 축소되기 시작하였다.²⁵⁾ 자연의 법칙으로부터 벗어난 인류사회의 시·공간 양상의 변화는 농업혁명 이후 오늘날까지도 지속불가능성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²⁶⁾

역사적으로 농업의 발생은 인류사회의 시간적 범위를 확장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유목 사회의 경우 식량 저장 능력에 한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비축할 필요성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시간의

24) 자크 아탈리, 이효숙 역 (2007), p. 19, p. 406.

25) 박이문 (2002), p. 11.

26) 유발 하라리, 조현욱 역 (2015), p. 151.

범주에 해당되지 않았다. 반면 농경 사회의 핵심은 생산성의 향상으로 인한 잉여 생산물의 축적으로, 농경민들은 미래의 생존을 위해 내일 혹은 한 달 뒤, 더 나아가 몇 해나 몇십 년이라는 세월에 대해 고민해야만 하는 운명에 놓이게 되었다. 자연환경으로부터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시간과 노력을 통하여 식량을 얻을 수 있었던 수렵·채집 방식과는 달리 농업은 인간이 스스로 땅을 일구어 식량을 생산하는 노동집약적 식량 획득 방식으로, 곡물의 재배는 땅과 자원, 생산된 식량을 재산으로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²⁷⁾

농경 사회에서는 식량 생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계절의 변화가 주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농경민들에게 농작물의 생산을 위해 시간의 흐름을 읽어내는 것은 생존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가 되었다. 기존에는 수렵과 채집을 통하여 자연으로부터 수습, 수백 종에 이르는 다양한 먹거리를 섭취했기 때문에 비록 저장해둔 식량이 없더라도 어려운 시절을 몇 해라도 견뎌낼 수 있었지만,²⁸⁾ 농경민들은 농작물 위주의 섭취 패턴의 변화로 흉년을 대비하여 한 해, 혹은 다음 수확 계절까지 버티기 위한 식량을 비축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농업에 의한 인류사회에서의 시간적 범위의 확장은 인류가 미래의 생존을 위해 덜 필요하거나 혹은 필요하지 않을지 모르는 자원을 한계 없이 비축하도록 하여 생태계의 환경용량의 초과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수요를 저해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또한 농업의 발생은 인류사회의 공간적 범위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유목민들은 일반적으로 매달, 매주, 심지어는 매일 집을 옮기면서 수습, 수백 킬로미터에 이르는 영토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²⁹⁾ 임시적 거주 환경에서의 자원의 이용은 자연스럽게 생태계의 자원순환성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 유발 하라리Yuval Noah Harari는 농업혁명의 핵심을 ‘더욱 많은 사람들을 더욱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있게

27) 클라이브 폰팅, 이진아·김정민 역 (2010), p. 79.

28) 유발 하라리, 조현욱 역 (2015), p. 126.

29) 유발 하라리, 조현욱 역 (2015), p. 149.

만드는 능력'이라고 주장하였다. 농업은 단위 토지 당 식량생산성을 크게 향상시켜 양질의 토지를 중심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여 거주하도록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정착지에서의 집약적인 자원의 이용을 촉진시켜 정착지와 주변 자연 환경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경작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에서의 정착은 곧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에 600년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농경민들은 가축화되고 작물화된 동·식물과 함께 지구 지표면의 2퍼센트에 해당하는 매우 좁은 지역에 몰려 살았다.³⁰⁾ 농업의 시작으로 인류는 경작에 유리한 토지를 찾아 정착하게 되었으며, 인류사회에서의 공간적 범위의 축소는 특정 거주 환경으로의 정착을 통해 생태계의 자원순환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자연의 공간은 끝없이 팽창하는 인류를 수용할 수 없으며, 자연의 한정된 자원은 인간의 경제 활동을 위한 원료를 영원히 제공할 수 없다.³¹⁾ 또한 인간의 무한한 정신적 세계와는 달리 자연의 물질적 세계는 유한하기 때문에 인간은 무한한 정신적 세계의 틀 안에서 사고와 행동의 시·공간적 범위를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지만, 그것이 실현되는 물리적 토대인 물질적 세계는 자연의 법칙에 종속된다. 역사적으로 농업으로부터 시작된 인류사회의 시간의 확장과 공간의 축소는 인류로 하여금 자연을 더욱 집약적으로 이용하고 자원을 한정 없이 축적하게 함으로써 지속불가능성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이는 지금까지와 같은 비가역적인 문명의 진행 방식으로는 환경 위기의 가속화로 인해 인류 또한 존속할 수 없으며, 따라서 자연과 문명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가치관으로의 전환을 이행할 시점에 놓여있음을 의미한다.

30) 유발 하라리, 조현욱 역 (2015), p. 150.

31) 박이문 (1998), p. 24.

3. 노마드적 가치관의 특징 분석

정착민들은 지난 수천 년 동안 문명으로 대변되는 진보된 삶의 형태를 마련해왔다. 하지만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생태·사회적 위기를 돌아볼 때 정착해서 사는 삶의 방식이 앞으로도 인류에게 적합한, 그래서 지속적으로 영위해야 할 당위성을 제공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 인류문명을 환경변화와의 상호작용 과정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인간의 정주행태는 자연환경을 능동적으로 다루는 능력을 크게 향상시켜 문명의 발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지만³²⁾, 동시에 자원의 과도한 이용과 불균형적인 분배,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기후변화와 빈곤 등의 수많은 생태·사회적 문제들을 초래하였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인구 규모와 밀도가 높고 자원의 생산 및 소비가 집약적으로 일어나는 정착 생활과 비교했을 때 유목 생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은 ‘소규모 집단’과 ‘강한 이동성’이다. 집단의 규모를 작게 유지하는 것과 강한 이동성 사이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데, 집단의 구성원을 25~50명 정도의 소수로 유지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풍족한 야생 자원을 찾아 다른 장소로 이주하는 집단의 기동성에 커다란 이점으로 작용하게 되었다.³³⁾

끊임없이 이동하는 유목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 인간에게는 생존을 위해 매번 변화하는 거주 환경에 순응하는 삶의 방식이 요구되었다. 인구가 적고 인구 밀도가 낮으며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이 시기의 인류의 생활방식은 환경에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았으며, 따라서 가역적인 방식의 문명이 진행될 수 있었다.³⁴⁾ 또한, 주기적으로 이동하는 유목 집단 내에서는 저장 능력의 한계로 소유의 개념이 소극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집단 내에서

32) 정희성 (2008), pp. 3-4.

33) 이안 모리스, 이재경 역 (2016), p. 63.

34) 클라이브 폰팅, 이진아·김정민 역 (2010), p. 54, p. 57.

소유물은 공유되었으며, 빈부의 격차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평등한 공동체 문화가 존재할 수 있었다.

본 절에서는 유목 생활양식에 내재되어 있는 가치관에 대한 탐색을 통해 오늘날 지속가능성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소규모 집단’과 ‘강한 이동성’의 주요 특징인 ‘소극적 소유’, ‘생태적 문명’, ‘평등’의 개념을 중심으로 유목 생활과 정착 생활의 비교를 통해 노마드적 가치관을 구성하는 주요 특징들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1) 소유와 풍요

고대 수렵·채집 집단에서는 개인이 자본을 소유하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들은 주어진 환경에서 이용 가능한 여건들을 개인의 것으로 소유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보다 적게 원함으로써 보다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었다. 인류학자 마셜 살린스 Marshall Sahlins는 수렵·채집의 삶을 ‘생존을 위한 끊임없는 투쟁’으로 바라보았던 기존의 사회 진화론적 시각에 반하여 수렵·채집 사회를 ‘원초적 풍요사회’로 바라보았다.³⁵⁾ 살린스는 풍요를 ‘인간의 욕구가 충족된 상태’로 정의하며, 풍요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만들어 내는 것’과 ‘적게 원하는 것’을 구분하여 설명하였다.³⁶⁾ 수렵·채집인들은 적게 원하는 방식을 통하여 사회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이 가능하였으며, 자연을 소유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생존을 위해 요구되는 필요 이상의 것을 축적하지 않았다.

농업혁명을 기점으로 인류는 지표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인류는 수렵·채취 생활에서 벗어나 스스로 식량을 생산해낼 수 있는 식량 생산체계를 개발하였으며, 농작물을 수확하기에 유리한 비옥한 땅을 점유할

35) 고일홍 (2009), p. 158.

36) 고일홍 (2009), p. 159.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 농업은 단위 토지 당 식량 생산량을 크게 증대시켰으며,³⁷⁾ 생존을 위해 요구되는 적정 수준의 식량 생산을 초과하여 잉여 생산물을 발생시키게 되었다. 잉여 생산물의 축적은 인류에게 있어 식량의 개념을 바꾸어버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 기존의 물리적인 생존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건에서 개인이 소유한 자본으로 점차 그 개념이 변화하게 되었다. 농업혁명으로 인류사회에 발생한 자본 소유의 개념은 자본을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 간의 사회적 격차를 발생시켜 결과적으로 인류사회에서 경제적 불평등의 발생과 비옥한 토지를 점유하기 위한 혹은 자본을 탈취하기 위한 부족 내의, 부족 간의 전쟁을 발발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역사적으로 인간이 풍요를 달성하는 방식은 ‘적게 원하는 것’에서 ‘많이 만들어 내는 것’으로 철저히 이행되었다. 오늘날 적게 원하는 풍요의 방식이 당시 덜 문명화된 인류의 능력상의 한계에 의한 수동적 풍요로 비취질 수 있지만, 이것이 현대사회의 물질중심주의 가치관에 주는 함의는 분명하다. 적게 원함으로써 풍요를 달성하는 방식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 요구되는 최소량이라는 한계치를 측정할 수 있는 반면, 많이 만들어 냄으로써 풍요를 달성하는 방식은 인간이 만족하는 정도의 한계를 측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인간의 모든 소유가 자연으로부터 시작되고, 동시에 자연으로부터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의 총량이 한정되어 있다면 인간의 소유 의식은 생태계의 허용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소유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인류는 영원히 풍요를 달성할 수 없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위해 물질 중심적 소유관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요구된다. 고대 유목 생활양식에서 나타난 소극적 소유관과 원초적 풍요사회는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들에 대한 소유의 의미를 반성하고 올바른 소유의 의미를 검토하기 위한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37) 유발 하라리, 조현욱 역 (2015), p. 128.

(2) 자연과 문명

고대 수렵·채집인들은 임시적 혹은 반영구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의 지리적 여건에 따라 삶의 방식과 사회적 구조를 변화시키는 환경순응적 environment-adaptive 삶을 영위하였다.³⁸⁾ 따라서 생존을 위해서는 계절의 변화와 동·식물의 성장주기와 같은 주변 환경에 대한 깊은 지식이 요구되었다. 현재 머물고 있는 지역에서 생존을 위한 가용 자원이 떨어지게 되면 다른 장소로 이주하여 새로운 삶의 터전을 구축하였다. 고대 수렵·채집인들은 주기적인 거주지 이동을 통해 생태계의 환경 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변 환경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농경 생활은 식량 생산성의 급증으로 수렵·채취 생활에 비하여 생활 집단의 인구 규모와 인구 밀도를 크게 높이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³⁹⁾ 특정 지역에 보다 많은 인구가 머물면서 지역의 자원을 보다 많이, 그리고 빠르게 소비하였으며,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표층을 인위적으로 변형시키는 정도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동성이 강한 수렵·채취 생활을 청산하고 정착 농업을 시작한 인류에게 식량 확보는 이전과 같이 생존을 위한 급선무의 과제가 아니게 되었으며, 정착 생활은 인류의 편의를 위한 기술의 축적과 발전, 그리고 사회 조직화와 문자의 개발을 통한 문명 발달의 초석을 마련해주었다.

빙하기가 끝날 무렵 인간의 환경에 일어난 최대 변화는 에너지 획득량의 폭발적 증가이다.⁴⁰⁾ 수렵·채집에서 농경으로의 에너지 획득방식의 변화는 인류의 주요 에너지 공급원이 야생 자원에서 길들인 자원(가축화, 작물화된 동·식물)으로 변화하였음을 의미한다. 환경에 적응하여 삶의 방식을 조정했던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농업혁명을 기점으로 인류는 환경으로부터의 제약을

38) 클라이브 폰팅, 이진아·김정민 역 (2010), p. 43.

39) 유발 하라리, 조현욱 역 (2015), pp. 128-129.

40) 이안 모리스, 이재경 역 (2016), p. 37.

극복하고 스스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게 되었다. 가축화, 작물화된 동·식물을 기르기 위한 인공 서식지를 조성하기 위해 기존의 생태계의 균형을 파괴하게 되었으며, 식량 생산성의 향상으로 더 많은 인구를 부양할 수 있게 되었지만 모순적으로 이미 불어난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서 이전의 수렵·채취 생활로 돌아갈 수 없는 비가역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⁴¹⁾

기술과 문화를 통해 자연으로부터의 제약을 극복하는 것을 문명의 진보로 여겨왔던 역사의 시대는 지났다. 생태계의 선순환 고리를 벗어난 인류의 비가역적인 문명 행위는 결국 생태계를 넘어 인류 자체의 존속을 위협하게 되었다. 주변 환경에 별다른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으며, 자연에 수동적으로 순응해야 했던 고대 인류의 모습은 그저 덜 문명화된 무력함으로서 비취지지 않으며, 오늘날 인류가 겪고 있는 생태·사회적 위기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 한다. 자연이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문명의 전제 조건임을 인정할 때 지금까지와는 구별되는 가역적인 문명을 위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된다. 고대 유목 생활양식에서 나타난 환경순응적 문명관은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자연환경의 극복 및 발전지향적 문명관에 대한 반성과 21세기의 가역적인 문명의 방향성을 검토하기 위한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3) 평등

고대 수렵·채집인들은 사회적 위계보다는 평등을 중시하였다. 집단 내에서의 사회적 지위는 소유나 상속을 통한 부의 기준이 아닌 주변 환경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사냥하고 채집하는 능력과 집단을 연합시키는 능력에 좌우되었다.⁴²⁾ 따라서 상대적으로 부유하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부모로부터의 재산의 대물림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으며, 거주지를 옮기

41) 클라이브 폰팅, 이진아·김정민 역 (2010), p. 99.

42) 이안 모리스, 이재경 역 (2016), p. 73.

는 과정에 있어 다음 행선지를 결정하는 일과 같은 집단 공동의 결정 사항을 놓고 한 사람이나 소수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도권을 잡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용되었다.⁴³⁾ 이렇게 사회적인 평등을 조성하는 집단의 분위기 속에서 개인은 많은 소유물을 비축할 필요가 없었으며, 하루 중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노동하지 않았다. 이안 모리스 Ian Morris는 수렵·채집인들이 집단 내에서 철저히 평등주의적 가치관을 공유하였는데, 특히 정치적, 경제적 위계를 극도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음을 주장하였다.⁴⁴⁾ 집단 내의 평등한 정치·경제적 분위기에 의해서 발생하는 공유 정신은 획득한 잉여 생산물을 비축하지 않고 타인과 나누며 사회적 상호관계를 다질 수 있도록 하였다.⁴⁵⁾

농경 사회에서는 잉여 생산물의 축적으로 인한 빈부 격차가 사회적 불평등을 조장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잉여 생산물을 누구에게 얼마나 분배할 것인지의 문제가 집단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면서 분배를 통제하는 지도자 및 엘리트 계층과 같은 비농업 지배 계층의 영향력이 더욱 거세졌으며, 농업은 대규모 정치사회체제를 운영하기 위한 토대로서 작동하게 되었다.⁴⁶⁾ 농경 사회가 시작된 이후 농경민이 생산한 대부분의 잉여 생산물은 지배 계층으로 흡수되었고, 식량 생산성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농경민들은 끊임없는 굶주림과 부족한 식량, 영양실조의 위협 아래 살아가게 되었다.

오늘날 빈곤으로 대표되는 불평등의 기원은 농업혁명 이후에 나타난 부의 불균형한 분배와 계급의 발생이라 할 수 있다. 농업혁명을 기점으로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인구와 식량 생산량이 증가하였지만, 전체 생산량이 증가한 것에 비례하여 각 개인에게 돌아가는 소득의 양이 증가하였는지에

43) 이안 모리스, 이재경 역 (2016), p. 65.

44) 이안 모리스, 이재경 역 (2016), p. 76.

45) 이안 모리스, 이재경 역 (2016), p. 71.

46) 유발 하라리, 조현욱 역 (2015), p. 153.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농경을 시작하고 약 8000년 동안의 인류 역사를 잉여 생산물의 습득과 분배의 역사로 보았던 클라이브 폰팅의 주장대로, 지배층을 중심으로 한 분배의 역사는 모든 불평등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수렵·채집인들의 집단을 중심으로 한 평등주의적 가치관은 오늘날 개인주의와 물질만능주의로 인한 올바른 공동체 문화의 부재 현상을 여실히 보여준다. 상호 협력과 나눔, 그리고 집단 내 위계보다는 사회적 평등을 중시하였던 고대 유목 생활양식을 통해 우리는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평등의 의미에 대해 검토해보고 올바른 공동체 문화의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내용을 현대사회의 주류 가치관인 발전지향적 가치관과 비교했을 때 노마드적 가치관은 21세기의 지속가능한 문명을 위한 수많은 함의를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3). 다음 장에서는 노마드적 가치관이 지속가능성의 실현에 갖는 함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구분	발전지향적 가치관	노마드적 가치관
환경적 차원	환경에 대한 인간 집단의 전체적인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남	환경에 대한 인간 집단의 전체적인 영향력이 매우 적게 나타남
	삶의 방식에 의해 지리적 여건이 변화	지리적 여건에 의해 삶의 양태가 변화
	번영과 풍요를 위해 과학기술에 대한 깊은 지식이 요구됨	생존과 공생을 위해 주변 환경에 대한 깊은 지식이 요구됨
경제적 차원	최대한의 물질 소유	최소한의 물질 소유
	불평등한 부의 분배	평등한 부의 분배
	땅과 자원, 식량된 생산의 재산화	땅과 자원, 식량된 생산의 비재산화
사회적 차원	위계질서와 계급을 중시	위계보다는 사회적 평등을 중시
	식량 부족, 영양실조, 과로	풍요로운 식량과 낮은 비중의 노동

[표-3] 현대사회의 발전지향적 가치관과 노마드적 가치관의 특징 비교

IV. 노마드적 가치관과 지속가능성의 실현

1. 지속가능한 가치관으로의 전환

본 절에서는 지속가능성 논의에서 대표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존 엘킹턴 John Elkington의 TBL(Triple Bottom Line) 개념에서 나타나는 지속가능성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차원에서 노마드적 가치관을 구성하는 주요 특징이 현대사회의 지속가능성에 갖는 비평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⁴⁷⁾

(1) 경제적 차원 - 소유와 풍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의 소유와 축적은 수많은 사회·환경적 병폐를 야기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인간의 물질 욕구는 어떠한 한계도 인식하지 않은 채 경제적 가치와 결합되어 팽창해왔다. 이홍균은 환경 파괴의 원인을 산업 자본주의 이후 사회 변화를 이끌어온 주된 추동력이었던 세계 체계 내의 서로 다른 확대 재생산율로 규명하였는데⁴⁸⁾, 오늘날 거둬들인 자본 축적의 과정이 문제시되지 않는 한 지금까지와 동일한 수준의 환경 파괴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간 사회의 확대 재생산⁴⁹⁾은 지속불가능성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지속가능성은 자연과 사회 간의 균형을 전제로 하지만, 자연은 단순 재생산의 순환 체계이며 사회는 확대 재생산의 순환 체계라는 점에서 양자 간의 관계는 불균형적이다. 사회가

47) 송주연·임석희 (2015), p. 679.

48) 이홍균 (2000), p. 812.

49) 확대 재생산이란 자본의 축적이 거둬들여 행하여지는 과정을 의미하며, 단순 재생산은 동일규모의 생산이 단순히 반복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자연과 같이 단순 재생산의 순환 체계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와 같은 사회의 자연에 대한 착취로 인해 지속가능성의 실현은 불가능해지게 된다. 하지만 경제 발전과 환경보호의 양자 사이에서 중립을 고수하려는 지속가능발전의 입장은 경제 발전이라는 현실의 문제로 인해 인간 사회의 단순 재생산 순환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적극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역설적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결핍과 정신적 결핍은 물질적 소유로 대변되는 인간의 양적 풍요로는 인간의 질적 풍요를 채울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인간의 욕구를 끊임없이 창출하여 ‘많이 만들어 내는’ 문명사회와 ‘적게 원함으로써’ 삶의 풍요를 누릴 수 있었던 고대 원초적 사회를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는 ‘많이 만들어 냄으로써’ 또는 ‘많은 것을 소유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풍요가 진정한 유효한 것인지를 검토해 볼 필요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소유의 개념과 풍요의 의미를 재정립하는 것은 그동안의 주류 가치였던 경제적 측면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사회·환경적 문제들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확립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지속가능성의 실현을 위해서는 현대사회의 소유와 풍요의 의미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요구된다. 고대 유목 생활양식에서 나타난 소유관과 풍요관은 고대 수렵·채집인들의 원초적 풍요 사회에 이은 현대적 풍요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정신적 기틀 마련의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표 4).

(2) 환경적 차원 - 자연과 문명

20세기의 경제 발전의 이데올로기 속에서 외부로부터 자본이 들어와 자연을 파괴하고 전통적인 문화를 대체하는 것을 문명의 진보로 여겨온 과거의 역사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지금까지 통용되었던 ‘발전’의 의미를 되돌아보아야 함을 시사한다.⁵⁰⁾ 이제는 인간과 자연의 올바른 관계성을 토대

로 경제 발전을 모든 인류 활동의 전제 조건으로 바라보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사회가 생태계의 균형을 깨트리지 않는 양자 간의 평형 상태에 이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환경과 발전의 공존을 추구하는 지속가능성의 개념은 그 모호성으로 인해 특히 환경정치학의 영역에서 국제적으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었지만 동시에 개념 자체에 대한 수많은 비판적 논의를 불러일으키게 되었다.⁵⁰⁾ 특히 환경론자들의 관점에서도 급진적 환경론, 점진적 환경론 등과 같이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하게 나타나 환경에 대한 일관된 입장을 취할 수 없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었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모든 비판적 논의들의 기저에는 지속가능성이 취하고 있는 인간 중심주의가 존재한다. 환경이 여전히 인간의 발전을 위한 범위 내에서 파악이 된다면 엄격한 의미에서의 생태적 지속가능성은 영원히 실현 불가능한 추상적 개념에 지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자연과 인간의 관계, 더 나아가 자연과 문명의 수평적인 관계를 위해서는 인간 중심적 관점에서 벗어나 생태 중심적 관점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지리적 여건에 따라 환경에 순응하며 생존했던 고대 유목 사회의 삶의 형태는 현대인의 시각에서 미개하고 진보되지 않은 반反문명으로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유목 생활양식이 인류 역사를 통틀어 인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적을 수 있었던 가장 오래 지속된 삶의 방식이었음을 되돌아볼 때, 자연과 조화되는 문명관을 위한 이념적 실마리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해볼 수 있다.

문명의 진보를 인류사회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환경을 인위적으로 변형시키고 자원을 활용하는 능력으로 바라보는 인간 중심적 관점으로부터 벗어나 생태 중심적 관점으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인류문명과 발전

50) 더글러스 러미스, 최성현·김종철 역 (2011), p. 67.

51) 김판석·사득환 (1999), p. 79.

을 뗄 수 없음을 인정하더라도 자연 없이는 발전이 가능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21세기의 문명은 존속되어야 한다(표 4).

(3) 사회적 차원 - 평등

현대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불평등의 주요 원인은 자원의 희소성과 분배 방식의 차별성으로 정의될 수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올바른 공동체 문화의 상실에 있다. 근대 이후 화석연료의 남용과 산업화에 기반을 둔 대량 소비사회의 도래는 인류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면서 사회와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규모의 전 세계적 불평등을 초래하게 되었다.⁵²⁾

지속가능성의 핵심 개념은 세대 간의 형평성으로, 미래 세대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는 계층 간의 형평성을, 국제적으로는 국가 간의 형평성을 내포한 포괄적인 의미의 형평성을 지칭한다.⁵³⁾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평등의 실현은 올바른 공동체 문화 안에서 복지 문제를 제도화하고 성장 위주의 사고에서 벗어나 분배적 정의와 기회 균등을 확보하여, 공존과 공생의 가치가 깃들어있는 지역사회문화를 회복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⁵⁴⁾ 지역으로부터 회복된 공동체 문화는 계층으로, 국가로 퍼져나가며 지속가능성의 형평성 실현을 위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

또한 지속가능성은 환경과 자연 자원에 대한 미래 세대의 권리에 주목한다. 하지만 현재는 미래 세대의 수요에 대한 막연한 정의만이 존재하는 상황이며, 어느 시점의, 누구를 위한, 어떠한 성격의 권리인지에 대한 논의와 구체적인 정책적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저 추상적인 시도에 그치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국가별로 미래 세대의 설정을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 기간에 따른 정책적 실행계획을 세우고 이행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52) 클라이브 폰팅, 이진아·김정민 역 (2010), p. 499.

53) 김판석·사득환 (1999), p. 81.

54) 정희성 (2008), p.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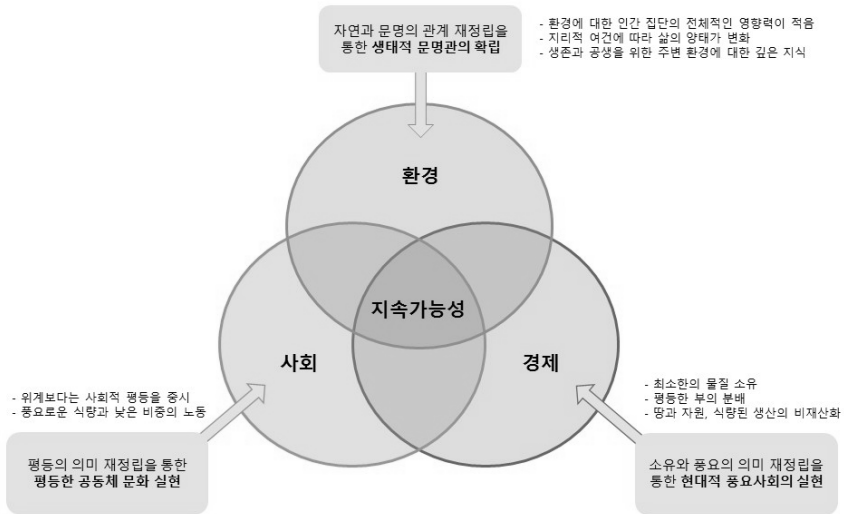
고대 유목 사회가 오늘날 풍요 사회로 비추어질 수 있는 이유는 고대 유목 사회의 결여가 ‘절대적 결여’가 아닌 ‘바깥에서 본 결여’이기 때문이다. 고대 유목 사회에서는 평등한 공동체 문화를 기반으로 한 집단 공유 의식이 존재했기 때문에 계급에 따른 차별과 빈부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다. 역설적으로 문명의 발전과 풍요의 상징인 농업혁명 이후로부터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인류의 공통된 운명이 되었음을 생각해볼 때,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평등이 진정한 의미의 평등이었는지를 검토해보아야 한다(표 4).

지속불가능성의 원인은 지속가능성의 실천적 토대인 가치관의 부재에서 찾을 수 있다. 지속가능성의 균형성과 연계성의 실현을 위해서는 21세기의 인류사회가 직면한 사회문제와 환경위기에 대응하는 공동의 가치관이 확립되어야 한다. 노마드적 가치관은 현대적 풍요사회, 생태적 문명, 평등한 공동체 문화 실현의 토대로서, 오늘날 발전지향적 가치관의 한계를 극복하는 21세기의 지속가능성 실현을 위한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2. 지속가능한 생활양식으로의 전환

지속가능성은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생활양식으로의 전환을 통해 실현될 수 있으며 이는 지속가능성의 개념적 논의에서 나아가 실천적 논의에 이르러야 함을 의미한다. 클라이브 폰팅의 주장대로 환경을 지키려는 모든 노력이 역사적 탐구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면 지리적 여건에 따라 삶의 양태를 변화시키며 자연과 공생하였던 유목의 삶의 방식은 현대사회의 지속가능성 실현에 커다란 함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⁵⁵⁾ 현재 지속가능성의 실천적 논의는 지속가능발전의 차원에서 발전의 목표와 성과 지표를 설정하여 국가적 차원과 도시적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지만 보다 근원적인 문제의 해결은 소규모 공동체와 개인적 차원에서의 생활양식의 변화로부터 이루어

55) 클라이브 폰팅, 이진아·김정민 역 (2010), p. 513.



[그림-1] 노마드적 가치관이 지속가능성에 주는 함의

질 수 있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생태계의 환경 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생활양식의 사례들을 검토해보고 그것이 현대 사회의 지속가능성 실현에 갖는 함의를 도출하는 것은 유의미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인류 문명사의 관점에서 인류가 유목 생활을 청산하고 정착 생활을 시작한 것은 아주 최근의 일이다. 인류의 육체적, 심리적, 사회적 능력과 생활양식이 현 인류가 영위하고 있는 정착 생활보다는 오히려 인류가 수백 만 년 동안 지속해온 유목 생활에 더욱 적합한 것이라면, 인류의 본원적인 삶의 방식은 소규모의 집단을 이루어 끊임없이 이동하며 살아가는 유목의 삶일 수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⁵⁶⁾ 이러한 맥락에서 거주の本질적인 의미에 대해 고찰하였던 하이데거Martin Heidegger가 언급한 ‘거주한다는 것이 지닌 본래적 결핍’이란 인류의 본원적인 삶의 방식으로부터의 결핍일지 모른다.⁵⁷⁾

56) 고쿠분 고이치로, 최재혁 역 (2014), p. 69.

역사적으로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는 인류에게 지속가능성의 개념은 다양한 형태로 계속 존재해왔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영위하고 있는 생활양식이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줄 수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해보고, 나아가 역사적 선례로부터 지속가능한 생활양식의 요소들을 추출해내는 작업이 요구된다. 궁극적으로 지속가능성의 실천적 논의는 인식적인 접근으로부터, 즉 가치관의 변화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표 4).

이념	세계관	가치관	실천 전략	
			국가, 지역, 도시	공동체, 개인
지속가능성	인간중심적 세계관 생태중심적 세계관	노마드적 가치관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한 생활양식

[표-4] 지속가능한 가치관과 생활양식

3. 현대사회와 노마드적 가치관

정주 체계인 도시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현대사회의 주요 특징 가운데 하나는 역설이게도 유목의 속성인 ‘모빌리티’이다. 사람들은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끊임없이 이동한다. 현대인들의 삶에 고정된 가치는 존재하지 않으며 국가의 범주를 초월한 새로운 시민성이 강조되고 있다. 자크 아탈리의 주장대로 시·공간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디지털 문명 속에서 사람들은 일상으로부터의 탈출을 위해 혹은 직업을 구하기 위해 정착을 거부하고 유목민으로 회귀하고 있는 듯하다.

지난 수십 년간 가상 세계와 실제 세계에서의 정체성의 혼란, 디지털

전체주의,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심화 현상 등 디지털 문명에 대한 수많은 회의적인 시각이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문명이 기존의 정주중심형 문명, 중앙집중형 문명에 대한 하나의 대안적 접근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디지털 문명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의 틀과 자율적인 시민성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는 디지털 사회로의 진입이 노마드적 삶과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한다. 하지만 유목에 대한 현대적 접근들이 단순히 이동성에 초점을 맞춘 개념의 재해석에 그칠 수 있다는 위험성 또한 경계해야 한다. 유목에 대한 개념적 고찰은 현대인의 생활 방식과 사회 현상의 원리를 설명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것에 숨겨진 가치관을 해석하여 실천적으로 적용할 때 지속가능성 실현을 위한 함의를 지닐 수 있다.

V. 결론

지속가능성의 실현을 위한 논의는 지속가능성의 실천적 토대인 가치관의 부재에 대한 비판적 검토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지속가능성은 모든 인간 사회에 공통으로 부여된 과제로서, 인류 역사의 흔적을 되돌아보고 그 흔적 속에 담긴 지속가능한 생활양식의 요소들을 추출하여 현세대의 지속가능성 개념을 보완하는 것은 유의미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인류는 수백 만 년이나 되는 존속 기간의 대부분을 소규모 집단을 이루어 끊임없이 이동하며 살았다. 이 시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유목은 인간이 환경으로부터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의식주에 필요한 자원을 얻을 수 있었던 생활양식의 선례를 보여준다. 문명의 진보로 상징되는 농업혁명과 정착 혁명의 발생은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일어난 거대한 변화임이 분명하지만 동시에 비가역적인 문명의 시발점이 되었음을 생각해볼 때, 유목이 오늘날의 자연과 인간 사회의 관계성을 재조명할 수 있는 수많은 함의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유목과 정착의 특징 비교를 통해 살펴본 노마드적 가치관의 주요 개념은 ‘소유와 풍요’, ‘자연과 문명’, ‘평등’으로, 현대사회의 발전지향적 가치관과의 비교를 통해 노마드적 가치관이 지속가능성에 갖는 비평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노마드적 가치관의 관점에서 조명한 지속불가능성의 원인은 농업혁명 이후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인류사회의 시간의 확장과 공간의 축소, 그리고 공동의 가치관의 부재이다. 문명의 혜택인 물질적, 육체적 조건의 극복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물리적 변화를 인위적으로 다소 극복할 수 있게 해주었으나 한정된 자원을 집약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생태계의 비순환성을 초래하였다. 또한 지속가능성 개념에서의 공동의 가치관의 부재는 지속가능성이 내포하고 있는 다양한 가치들 간의 충돌을 해소하지 못하며 개념상의 혼란을 야기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를 위해 노마드적 가치관이 지속가능성 실현에 갖는 함의를 다음의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로 노마드적 가치관에서 나타난 소유와 풍요의 의미 성찰을 통해 보다 지속가능한 가치관으로의 전환을 위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본 오늘날 지속불가능성의 주요 원인은 인간 사회의 확대 재생산으로, 자연과 사회의 균형적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는 사회의 단순 재생산 순환 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보다 적게 원함으로써 물질적, 정신적 풍요를 달성하였던 고대 유목 사회의 소유관이 지니는 함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둘째로 노마드적 가치관에서 나타난 자연과 문명의 관계 성찰을 통해 보다 지속가능한 가치관으로의 전환을 위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환경과 발전 사이에서 엄격한 의미의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간 중심적 관점에서 생태 중심적 관점으로의 전환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지리적 여건에 따라 삶의 방식과 사회적 구조를 능동적으로 변화시켰던 고대 유목 사회의 환경적응적 생활양식이 지니는 함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노마드적 가치관에서 나타난 평등의 의미 성찰을 통해 보다 지속가능한 가치관으로의 전환을 위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현대사회의 불평등의 근본적 원인은 올바른 공동체 문화의 상실로서, 공존과 공생의 가치가 깃든 지역사회문화의 회복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집단의 공유 의식을 바탕으로 한 고대 유목 사회의 평등한 공동체 문화가 지니는 함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대사회에서 모빌리티는 디지털 문명과 접목되어 새로운 삶의 방식을 구축해나가고 있다. 기존의 정주중심형 문명, 중앙집중형 문명에 대한 대안적 접근으로서의 모빌리티는 노마드적 가치관의 현대적 적용에 대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소규모 집단과 강한 이동성으로 특징 지워지는 고대 유목민들의 삶의 형태와 사고방식은 인류가 존속했던 역사의 대부분을 지탱해주었듯이 앞으로도 인류의 지속가능한 생활양식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그리고 실천적 접근의 토대인 지속가능한 가치관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새롭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참고문헌

- 고일홍 (2009), 「문명의 빈곤과 문명 이전의 풍요」, 『인물과사상』, 140: 154-169.
- 김판석·사득환 (1999),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와 정립」, 『한국정치학회』, 32(4): 71-88.
- 박이문 (1996), 『문명의 위기와 문화의 전환』, 서울: 민음사.
- _____ (1998), 「경제 위기와 생태 중심적 윤리」, 『환경과생명』, 17: 18-25.
- _____ (2002), 「제2회 김옥길 기념강좌: 위기의 문명과 대안 문명의 새 패러다임」,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 송주연·임석희 (2015), 「도시의 질적 발전을 위한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이론적 탐색」, 『대한지리학회』, 50(6): 677-694.
- 이흥균 (2000)a,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에 대한 환경 사회학적 비판」, 『현상과인식』, 80: 191-211.
- _____ (2000)b,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에 대한 비판: 열린 체계와 닫힌 체계」, 『한국사회학회』, 34: 807-831.
- 정희성 (2008), 「환경변화와 인류문명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환경논총』, 47: 3-23.
- 고쿠분 고이치로 (2011), 최재혁 역 (2014), 『인간은 언제부터 지루해했을까?: 한가함과 지루함의 윤리학』, 파주: 한권의책.
- 군둘라 앵리슈 (2001), 이미옥 역 (2016), 『잡노마드 사회』, 서울: 문예출판사.
- 더글러스 러미스 (2000), 최성현, 김종철 역 (2011), 『경제성장이 안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 서울: 녹색평론사.
- 마셜 살린스 (1972), 박충환 역 (2014), 『석기시대 경제학』, 파주: 한울아카데미.
- 스기야마 마사아키 (2011), 이경덕 역 (2013), 『유목민의 눈으로 본 세계사』, 서울: 시루.
- 유발 하라리 (2015), 조현욱 역 (2015), 『사피엔스』, 서울: 김영사.
- 이안 모리스 (2015), 이재경 역 (2016), 『가치관의 탄생』, 서울: 반니.
- 자크 아탈리 (2005), 이효숙 역 (2007), 『호모 노마드 유목하는 인간』, 파주: 웅진닷컴.
- 클라이브 폰팅 (2007), 이진아, 김정민 역 (2010), 『녹색세계사』, 서울: 그물코.

Richard Lee, Irvn DeVore (1968), *Man the Hunter*, Chicago: Aldine de Gruyter.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1987), *Our Common Futu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브리태니커 온라인 - 유목”,

http://premium.britannica.co.kr/bol/topic.asp?article_id=b17a1401a (검색일:
2019.07.06.)

Abstract

The Concept of Nomadic Values and Its Implications on Sustainability

Jang, Seok-Gil / Bayarsaikhan Tsolmon / Sin, Ji-Hye

Historically the concept of sustainability has existed in a variety of forms in civilization. However, it is urgently required to formulate a conceptual framework for a sustainable future by clearly organizing the current concept of sustainability as a national development standard in consideration of the ecological and social crisis all over the world today. The cause of the conceptual ambiguity of sustainability can be defined as the lack of common values that mediate the worldview and action standard of sustainability, and therefore, it would be a meaningful approach to supplement the concept of sustainability for both the present generation and future generation by extracting the conceptual meaning of sustainable values that has appeared historically through civilization. Mankind had lived in a small group, constantly moving, for the most part of the millions of years. Nomadism is an example of lifestyle where human beings had been able to obtain the necessary resources for food and shelter in a sustainable way from the environment and it has an important implication for sustainability in terms of a relationship between nature and human society. In this study, the main concepts of nomadic values that were examined by comparing the characteristics of nomadism and settlement are 'possession and richness', 'nature and civilization' and 'equality'. This paper attempts to present the critical implications of the Nomadic values on the sustainability of modern society at the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levels.

【Keywords】 Nomadism, Nomadic Values, Sustainability, Sustainable Development, Civilization

논문 투고일: 2019. 08. 08

심사 완료일: 2019. 10. 11

게재 확정일: 2019. 10. 11